

교회에 다니지 않는 이유

3. 헌금! 꼭 해야하나? 헌금해야 구원받나? [눅21:1-4]

✚ 기부금과 헌금의 차이를 아십니까?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.

1) 자선 단체에 큰 액수의 기부금을 낸 사람 A가 있습니다.

⇒ 세상의 사람들은 그에게 “참 좋은 사람이네”라고 말할 겁니다.

⇒ 교인들은 “교회에 쓸 곳도 많은데 왜 자선 단체에 기부했데?”라고 말할 겁니다.

2) 교회에 큰 액수를 기부한 사람 B가 있습니다.

⇒ 세상의 사람들은 그에게 “바보 아니야? 왜 그 돈을 교회에다가 내고 그래?”라고 말할 겁니다.

⇒ 교인들은 “와 역시 믿음이 좋네”라고 말할 겁니다.

✚ 왜 이런 차이와 인식들이 발생할까요? 먼저는 교회가 반성해야 합니다. 만일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하게 했다면 세상으로부터 이런 불신 어린 시선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.

✚ 내 주변 사람들을 살펴봅시다. 그들은 교회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나요?

✚ 오늘 주제의 질문을 두 가지로 나누어 봅시다.

① 헌금 꼭 해야하나?

② 헌금해야 구원받나?

✚ 첫 번째 질문(헌금 꼭 해야하나?)을 던진 사람의 의도는 무엇일까요?

① 헌금을 하기 싫다는 말인가?

② “나 헌금 안 해도 되지?”라고 물어본 것인가?

③ 헌금을 안 해도 되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고자 하는가?

④ 헌금 하고 싶으니 합당한 이유를 알려 달라는 것인가?

⑤ 내가 헌금을 알아서 낼 건데 강요하니까 헌금하기 싫다는 것인가?

✚ 두 번째 질문(헌금해야 구원받나?)을 던진 사람의 의도는 무엇일까요?

① 나는 구원을 받고 싶은데 헌금하지 않고 구원받는 방법이 알고 싶다는 것인가?

② 구원 받고 싶으니 얼마 정도 헌금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는 말인가?

③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그 자체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인가?

✚ 나는 이런 질문을 받으신 적이 있는지, 있다면 어떻게 답했었는지 생각하고 나누어 봅시다.

✚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.

✚ 그리고 다음과 같이 되물어야 합니다. “혹시 구원이 받고 싶은가요?”

① 아니요 저는 구원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.

⇒ 상대가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정중히 “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이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.”라고 말하며 질문에 답해줄 필요가 없습니다.

② 네 저는 구원이 뭔지, 어떻게 받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.

⇒ 상대가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과 천천히 은혜로운 대화를 이어가야 합니다.

✚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도 질문을 던지고 시작해야 합니다.

“헌금해야 구원받는다는 그 황당한 이야기는 어디서 들으셨나요?”

“성경에는 헌금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없습니다.”

✚ 그리고 헌금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 해주면 됩니다. 모든 일에는 유래가 있습니다.

헌금의 유래를 보면 헌금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.

① 인류 최초의 헌금은 약 ()년 전에 ‘(L)’이라는 땅에서 이루어 졌습니다.

② 최초의 헌금을 드린 사람은 두 명이었습니다. 형 가인은 농부였고 동생 아벨은 목동이었습니다.

③ 가인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.

④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생의 헌금만 받으셨습니다.

⑤ 그랬더니 형이 분노하여 동생을 때려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.

✚ 이것이 대략적인 최초로 인류가 헌금을 했던 사건의 스토리입니다.

✚ 인류 최초의 헌금은 네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.

① (ㅈ ㅅ)

⇒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원해서 헌금을 드렸습니다.

② 드리는 기쁨

⇒ 이들은 드리는 기쁨을 가지고 헌금했습니다.

③ (ㅅ ㄹ)을 받고 그 뒤에 제물을 받으심

⇒ 성경을 보면 “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.”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먼저 받으시고 그 사람이 준비한 헌물은 그 뒤에 더불어 받으셨습니다.

④ 열납의 (ㄱ ㅃ)과 불열납의 (ㄱ ㅅ)

⇒ 열납이란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말입니다. 하나님께서 열납하셨을 때 헌금을 드린 사람에게는 기쁨이 넘쳐났습니다. 반대로 하나님께서 불열납 하셨을 때는 고통이 따랐습니다.

✚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 않았는데 자원하여 헌금을 드렸을까요?
⇒ 그 이유는 자신의 소유 전부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.

✚ 오늘날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헌금은 하나님께 (ㄷ ㄱ)를 바라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.

✚ 다윗과 그의 백성들도 헌금을 할 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감사와 기쁨으로 자원하여 헌금을 드립니다. 그리고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. [역상29:9,14]
⇒ “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.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.”

❖ 나는 최초의 헌금을 드렸던 가인과 아벨처럼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자원하여 헌금을 드린 경험이 있는지, 다윗처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라는 고백과 함께 헌금을 드리고 있었는지 생각하고 나누어 봅시다.

✚ 마지막으로 삭개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.

- ① 삭개오는 큰 부자였으며 민족의 돈을 빼앗아 로마에 넘기는 세리였습니다.
- ②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오신다는 소문을 들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에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.
- ③ 그러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말씀하시니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.
- ④ 삭개오는 지난 날의 자신을 반성합니다. 그리고 재산의 (ㅈ ㅂ)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혹여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(ㄴ) 배로 갚겠다고 예수님께 말합니다.
- ⑤ 그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서는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.

✚ 삭개오 이야기의 핵심은 그가 헌금을 내서 (ㄱ ㅅ)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(ㄱ ㅅ)을 받은 감격에 헌금을 드렸다는 것입니다.

✚ 모두가 삭개오를 지옥의 자식,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라고 비난할 때 예수님께서서는 먼저 삭개오를 받으시고 감격한 삭개오가 드리는 헌금을 받으셨습니다.

✚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헌금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.

✚ 먼저 1절과 2절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.
⇒ 헌금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의 삶을 보고 계신 겁니다.

✚ 3절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는 헌금을 (ㅍ ㄷ)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.

✚ 마지막 4절은 하나님의 판단과 우리의 판단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.
⇒ 하나님께서는 헌금의 양이 아닌 그 (ㅅ ㄹ)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.

✚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내는 헌금은 (ㄱ ㅎ)를 위해 쓰는 것과 (ㅅ ㅎ)를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구분됩니다.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.

✚ 교회가 개인이 하기 힘든 구제사역을 공동의 이름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역할을 잘 해나가면 성경의 말씀처럼 ‘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.’ 라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.

✚ **마지막 결론입니다.**

① 헌금, 꼭 해야합니까?

⇒ *아닙니다. 헌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.*

② 헌금해야 구원받습니까?

⇒ *아닙니다. 헌금은 대가를 바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.*

✚ **마지막 결론의 문답을 옆 사람과 함께 주고받아 봅시다.**

(중요한 것은 내가 감격에 찬 표정으로 답하는 것입니다.^^)